

Business Economics

月刊 企業經濟

1995. 11 통권 제28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月刊
企業經濟
 1995. 11

이달의 시론	4	· 대등한 관계로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김기태
경제 전망대	6	· 경기 하강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	
기획 특집		주제 : 대·중소기업간 협력 관계의 현황과 발전 방향	
	12	· 戰後 일본 자동차 산업의 중층적 분업 구조 형성 과정	고기영
	19	· 부품 업체의 기술 자립·대형화	정진성
	33	· 자동차 산업 부품 공급 구조의 중층화	홍장표
	41	· 협력 기업 계열화 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주 현
중시 코너	51	· 저금리·고주가 시대의 도래	천일영
경제 현안	53	· 1996년도 세계 개편안의 평가	박기백
	59	· 근로자과견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전병유
	69	· 경기 전환점 예측 모형을 통한 경기 분석	이태열
	76	· 오사카(大阪) APEC에 대한 기대와 갈등	홍근철
	81	· 환율·금리 변화와 주식 시장의 향방	김원규 김희성
	90	· 민선단체장 취임 100일 후의 지방자치	김정균 신광철
문화 산책	102	· 한국 출신의 세계적 음악가들을 통해서 본 우리 민족의 기질	강일모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 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103	· 고전명화의 감상	이영재
건강 상 식	104	· 간경변	이영상
산업 분석	105	· 만불 소득 시대의 수출 구조	박송동
	113	· 글로벌 네트워크의 전개 양상과 전망	류재현
	122	· 게임 산업의 선진국 동향과 국내 발전 전략	정반석
	129	· 수도권 집중 개발의 문제점과 대안	윤창호
신경영 연구	135	· 애사심을 고취시키는 기업 문화 활성화 전략	한주희
	142	·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리회계시스템의 도입	백흥기
	147	· 의견 선도자(Opinion Leader)를 찾아라	고언정
	154	· 선진 기업의 경영 전략(VIII) - 도요타자동차	정기봉
경제 정책	156	· 주요 경제 정책 및 이슈	
해설 코너	158	· 파생금융상품 관련 용어 해설	
신간 안내	159	· 연구 보고서 및 신간 안내	
주요 경제 지표	160		

통권 제 28호
등록번호 라-6125
등록일자 1993년 7월 8일
발행일자 1995년 11월 1일
편집 및 발행인 김중웅
편집위원 정순원(위원장)
 김주현 김원규
 이영수 김선덕
 류재현 고수일
 배수현 박기백
 이용우
편집주간 심재철
발행처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대표전화 (02)746-8041
F A X (02)746-8050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636-0555

대등한 관계로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김기태 / 성균관대학교 교수, 경제학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물론 기업 도산이나 부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으레 제일 취약한 기업부터 차례로 쓰러지곤 하였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경기가 좋다는데도 특히, 중소기업 부도가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의 근원으로는 몇가지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경기가 좋아도 그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중소기업들은 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경기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이 경제 성장의 주역에서 자꾸만 멀어져가고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상당 수준 진행되어온 한국 경제의 개방화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개방이 진전될수록 국제 경쟁력 향상과 해외 수요 확보가 성장의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내수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의 비용 열위를 만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도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이같은 해외 진출은 대부분 섬유, 의복과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서 국내 사양 산업이거나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중견기업이지 우리가 말하는 문제의 중소기업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같은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은 사실상 대

기업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고도 성장 경제를 이끌어 오면서, 규모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ale and Scope)에 치중한 경제 정책의 결과로 오늘과 같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조적 불균형을 야기시켰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부문은 총부가가치 가운데 44.5%(1991년)를 생산하여 대만의 47%, 일본의 52%에 비하여 낮은 지위에 머물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역동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창업의 장으로서 중소기업의 의의나 끊임없는 경쟁적 시장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배분적 효율을 국민 경제 차원에서 극대화시키는 중소기업의 중요성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제 경쟁을 앞세워 규모의 경제를 내세우면서 이처럼 중소기업 부문의 위축을 간파해버리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다.

요즘처럼 시장마다 참입 장벽이 제거되고 국민 경제가 개방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幼稚산업보호론적인 중소기업 육성 방안이 그다지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게임의 물'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시혜적 육성보다는 대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남용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중소기업 대책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소기업 문제는 원론적으로 사회 후생의 관

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생산자로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후생의 증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방 경제 하에서는 세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란히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들 규모별 생산자들은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원칙에 따라 각기 다양한 산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산업은 중소기업에 고유한 업종으로 존속해야 한다는 가치 판단이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산업의 장기 평균 곡선의 특징으로 보아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가 크던가 아주 작다면 당연히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비용 우위에 있겠지만, 최소효율규모가 넓은 범위에 걸쳐 일정한 수평적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을 이룰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쟁에 내맡기기 보다는 중소기업으로 생산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어느 경우든 기술 개발이 가져오는 무한한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이 경우는 중소기업이라고 경쟁에 불리한 여건이 되어선 안되므로, 대기업의 경쟁 제한적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반드시 경쟁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술적으로 전방과 후방으로 연결되는 산업에 각각 존재하는 경우는 협조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도 최종재 시장의 위험을 일방적으로 후방 산업의 중소기업에 전가시킨다면, 그동안 고질화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등을 제거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대량 생산보다는 주문형 생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에 의한 세부적인 부품 개발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호혜적 입장에서 수직적 계열화가 새로운 각도에

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있는 것은 비교 우위 원칙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의 결과로만 보기도 힘들다. 자본 시장의 불완전성이 중소기업의 자본 조달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경쟁력과 기술은 갖고 있으면서도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설비 확장과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려고 해도, 은행이나 자본 시장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보다는 단기 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금융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면, 일시적인 자금 시장 불안정으로도 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주도로 재벌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관행에 대한 對證的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시혜적 차원의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허약한 중소기업을 양산하는 꼴이 되고말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금융 산업 구조 개편과 맞물려, 중소기업들이 자본 시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담보 대출 중 60%에 육박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 대출 관행을 신용 담보 형태로 정착시켜야 한다. 효율적인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자본 시장이 선진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은, 중소기업이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개발·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술 분업의 바탕 위에서 대기업과 동등한 지위에서 교섭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때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에 의한 지배력 남용의 제거와 진정한 경쟁력 시장 구조의 구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